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2015서울디지털포럼 기조연설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55 바른말 고운말	10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재)	0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0 비타민(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50 뉴스 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10 생활의 발견(재)	30 앙코르 휴먼다큐사랑 10주년 〈안현수 두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2부〉	15 세상발견 유레카 55 날씨와 생활
2		00 제14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한국인의 밥상(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2015 SK텔레콤 오픈 1R
3	00 직언직설	15 TV, 책을 보다(재) 55 튼튼생활체조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보름달 공장 40 아하! 동물탐험대(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재취업 프로젝트 〈나, 출근합니다〉(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2015서울디지털포럼 현장연결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오늘 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모큐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단짝〉 55 불후의 재발견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다큐 1 100세 사회의 경고 제1편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	00 수목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똣〉	00 드라마 스페셜 〈냄새를 보는 소녀〉
11	0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00 KBS 뉴스라인 40 일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15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 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재)
07:00 빠삐에 친구(재)
07:15 잭과 팡(재)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코코몽 3
09:05 원더볼즈(재)
09:20 풍선 코끼리 발루뽀
09:35 이얍! 스페이스 정글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3:50 따개비 루
14:00 마야의 모험
14:15 정글북 2
14:30 머털도사
15:00 초능력 특공대
15:15 두키 탐험대
15:30 빠삐에 친구
15:45 부릉! 부릉! 브루미즈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원더볼즈
16:30 우당탕탕 아이쿠
16:45 잭과 팡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두다다쿵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19:30 EBS 뉴스
19:50 청춘! 세계도전기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 전설의 왕국, 부탄〉
21:30 한국기행
〈내 마음의 울릉도〉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역사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확률과 통계〉
02:30 〃 〈기하와 벡터〉
03:20 〃 〈수학Ⅱ〉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Ⅰ〉
06:00 〃 〈지구과학Ⅰ〉
06:4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9:10 〃 〈이은주의 수학Ⅱ〉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b〉
11:00 〃 〈수학Ⅰb〉
12:1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a〉
14:50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15:40 〃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Ⅱ〉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8:10 뉴탐스런 〈화학Ⅰ〉
19:20 〃 〈지구과학Ⅰ〉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20:50 2016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21:50 〃 〈문학 B형〉
22:3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강좌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08:30 교육학 논술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영어1〉
10:30 〃 〈도덕2〉
11:10 〃 〈국어③④〉
11:50 〃 〈영어2〉
12:30 EBS 특강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13:10 등업신공 〈사회1〉
13:50 〃 〈사회2〉
14:30 〃 〈역사1〉
15:20 만점왕 〈과학 3-1〉
15:50 〃 〈과학 4-1〉
16:20 〃 〈과학 5-1〉
16:50 〃 〈과학 6-1〉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전과목 6-1〉
18:00 TV 중학 〈국어⑤⑥〉
18:40 〃 〈영어3〉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20:00 EBS 인문학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등업신공 〈역사 2〉
22:40 〃 〈과학3〉
23:20 필독 〈사회2〉
24:00 사선에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1일(음 4월 4일 丁酉)

子 **48년생**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언행 하는 이가 보인다. **60년생** 중복될 수도 있으니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72년생** 몇 차례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84년생** 옮기거나 고쳐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37, 66

丑 **49년생** 자연스러운 흐름을 애써 막을 필요는 없다. **61년생**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는 마당이다. **73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85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이익의 창출이 매우 크다. 행운의 숫자 : 77, 06

寅 **38년생** 중복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절제하자. **62년생**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74년생** 사소한 흠결을 주의하라. **86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한다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25, 92

卯 **39년생**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51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63년생** 추진은 되겠지만 성공률은 반반이다. **75년생** 별 일 없으면 가급적 동참하는 것이 이롭다. **87년생** 희망적이다. 행운의 숫자 : 18, 55

辰 **40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느니라. **52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낫다. **64년생**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면적이고 종합적이어야만 한다. **76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34, 40

巳 **41년생**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53년생** 지난날의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 **65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77년생**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0, 20

午 **42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54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느니라. **66년생**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계속 된다면 신뢰감을 주게 되리라. **78년생** 모르고 있으면 더 나을 뻔한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5, 73

未 **43년생** 희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67년생** 실정에 맞게 대처하고 운용해야 할 때이니라. **79년생** 근본적으로 상호 결부 되어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52, 12

申 **44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56년생** 너무 오래 동안 끌어오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68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무궁한 발전이 있다. **80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행운의 숫자 : 13, 29

酉 **45년생**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다가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다. **57년생**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69년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 **81년생** 체면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03

戌 **46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58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70년생** 근면함과 검소함이 복을 부르리라. **82년생** 미리 준비해 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89, 90

亥 **47년생** 처음처럼 대해야만 모면할 수 있느니라. **59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도다. **71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다. **83년생** 남에게 의뢰하지 말고 직접 모색하는 것이 깔끔하고 제일 낫다. 행운의 숫자 : 60,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13년만의 사죄

"아이들과 떳떳하게 한국땅 밟고 싶다"

군대 가려했지만 무산 한국 국적 회복하고 싶어

시민권은 인사드리러 갔다 부모님 설득에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가수 겸 배우 유승준(39)이 19일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가겠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날 밤 10시30분 영화제작자 신현원 감독이 진행하는 아프리카TV(afreeca.com/shinpro) 생방송에 출연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퇴출된 심정을 밝혔다.

방송에 앞서 무릎을 꿇고 흐느낀 유승준은 "제 어눌한 말솜씨 때문에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거 같아 무릎을 꿇었다"며 "이 자리는 제 심경 고백도 아니고, 변명의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께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솔직히 용기가 안 났고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다"며 "또 작년까지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잘못은 제가 해놓고 마치 제가 억울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이제라도 군대를 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당시 제가 내린 결정이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킬 지 몰랐다"며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군대를 가 아이들과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흐느꼈다.

– 만 38세가 군대에 갈 수 있는 최대 연령이다. 이제 만 39살이 돼 무엇인가를 밝힌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난, 질타의 말씀이 많아서 솔직히 복귀하는 게 자신 없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13년간 한국을 거의 안 보고 살았다. 그래야 살 거 같았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제 문제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제 마음도 평온하지 못한 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작년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했다. 그게 만 38살이었다. 당시 청룡(成龍)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청룡에게 지금 군대를 가겠다고 하니 저보고 대뜸 결정 잘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만 38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는 건 1980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더라. 저처럼 1970년대생들은 만 36세가 징집 최대연령이라고 해서 그 계획은 무산됐다.

– 2002년 입대 앞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일본 공연을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 전혀 아니다. 시민권 관련 인터뷰가 원래 2001년 10월경에 있었다.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라 하셨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간다고 했다. 군대 가기 전에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하셔서 일본 공연 후 미국에 가게 됐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돌아오는 계획이었다.

– 그런데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님 설득이 가장 컸다.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고, 기반도 미국에서 잡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 한국에서는 '거짓말쟁이', '매국노', '배신자'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한국 쪽을 거의 안 봤다. 그래야 살 거 같았다. 누군가가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저를 미국으로 도망간 계집애라고 하더라. 근데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같이 웃는 걸 가족들과 함께 봤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봤다.

–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 시간이 오래 지나 이렇게 사죄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 일찍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했다. 용기가 없어 나오지 못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유승준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크게 실망하셨던 부분 사죄드린다.

"배우와 회사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화 '오피스'서 인턴 미례 役 고아성

'괴물'·'여행자' 이어 3번째 칸 영화제에

배우 고아성을 다시 프랑스 칸으로 데려온 영화 '오피스'의 홍원찬 감독은 그를 주연배우로 캐스팅한 이유로 "이야기를 끌고갈 수 있는 20대 초반의 드문 여배우이자 자기만의 무늬가 있는 배우"라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고아성은 스물세살의 여배우로는 드물게 연예인보다는 연기자, 스타보다는 배우라는 느낌이 강하다.

19일 오후(현지시간) 칸 국제영화제 한국관에서 만난 고아성은 공포 스릴러인 '오피스'에 출연한 데 대해 "음침한 영화 출연을 즐긴다"며 "스릴러에 대한 편견과 전형적인 패턴을 깨는 신선한 영화라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회사로 들어온 김병국 과장(배성우)과 그의 동료들에게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그린 '오피스'에서 고아성이 맡은 인물은 조직의 피라미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턴 미례다.

고아성은 아역 출신으로 배우로만 살아가면서 회사원을 연기할 때 어려움을 묻자 먼저 "배우랑 회사원이 구분이 뚜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크게 다를 것은 없다"며 "배우 세계에도 정치는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온전히 될 수는 없지 않나"며 "회사원인 지인을 롤모델로 삼기도 했고 광화문 커피숍에 들어가 회사원들이 오가는 걸 한참 바라보며 연구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로서 세상을 회사라는 조직에 빗댄다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물음에 고아성은 '인턴'이자 '홈리스'라고 했다.

최근 인기를 끈 TV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신인상 후보에 올랐으니 '인턴'이고, 정치적인 면을 생각하면 노숙자나 다름없다는 재치있는 답변이다.

고아성은 칸에서만큼은 드라마를 잊고 지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그의 전작 중 칸 초청작으로는 '괴물'(2006), '여행자'(2009)가 있다.

그는 "'설국열차'의 틸다 스윈튼과는 1년에 두어 번 꾸준히 만나며 연락하고 지낸다"며 "틸다가 서울에 오거나 제가 유럽에 가면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눈다"고 말했다.

고아성은 "아역 배우가 성장하는 순리가 성인 역을 처음 맡고, 키스신을 찍고, 점점 농염한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한다"며 "시작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번 드라마는 그 순리를 배반하고 주변의 걱정을 깨버린 데 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염한 역할을 맡을 것 같은지 물음에는 "아직 생각 안 해봤지만, 끌리면 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파격이라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